

4·15총선 민주당 경선 격전지 분석

전·현의원, 농협회장 격돌

학력 전남대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 (전)문재인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 (전)농협중앙회 회장	(현)제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주요 공약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2 완성 ·광주과기원 2캠퍼스 에너지마이스터고 설립 ·화순 바이오메디컬 에듀시티 건설	·나주·화순 광역교통망 완성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 유치 ·화순 폐광지역 지원위원회 설립

나주·화순

김병원, 농업전문가·전문경영인 손금주, 4년 의정활동 신뢰 얻어
신정훈, 나주시장·국회의원 역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전)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주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밸리 건설
·화순 바이오메디컬 허브 육성
·나주·화순 마이카 택시 시범 도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나주·화순 선거구 후보 경선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 농협중앙회장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모두 지역 내 거물급 인사로 꼽히는 만큼 이들의 치열한 경선 경쟁이 예상된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경선 예비후보 중 가장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어 민주당 내 조직 세는 약하지만, 3선의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내고 농협중앙회장을 역임한 만큼 나주와 화순의 탄탄한 농협 기반을 통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40년 이상 농협 조합에 몸을 담았고, 특히 농협중앙회장 시절 농협중앙회를 국내 제9위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농업전문가 뿐 아니라 경제·경영 전문가로도 부각되고 있다.

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굵직한 사업들의 유지를 성공시키면서 나주와 화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중단없는 사업 추진과 나주·화순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손 후보는 ▲나주 SRF 전면 백지화 ▲경전선 정차 및 광역교통망 확충 ▲화순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등 캠퍼스 이전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및 백신 연구기관 이전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완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재선의 나주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신정훈 예비후보는 전 나주·화순 지역위원장까지 역임한 만큼 상대 후보들에 비해 조직면에서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남도의원부터 시장, 국회의원을 지내오는 등 그동안 지역 내 정치적 기록권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두루 소통할 수 있는 제가 나주·화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나주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밸리 구축 ▲한전공대·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 창출 ▲화순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화순 생물학 산업 메카 추진 ▲마이카 택시 시범 도시 추진 등을 내세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진 vs 현역 '리턴매치'

학력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전남대 일반대학원 졸업(NGO학 박사)
경력 (전)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선임행정관 (전)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전)민선 3-4-5기 무안군수 (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주요 공약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광주과기원 2캠퍼스 에너지마이스터고 설립 ·남약 신도시, 서남권 교육 중심도시	·농어촌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익형수산직불제 도입 ·1000원 여객선 도입 등 섬지역 교통여건 개선

영암·무안·신안

백재욱, 청 행정관 정통 당료 폭 넓은 인적네트워크 강점
서삼석, 3선 무안군수 지내 탄탄한 지역기반 표발같이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 경선에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지낸 백재욱(55) 예비후보와 현역 국회의원 서삼석(60)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선에 이어 두 예비후보의 리턴매치다. 신안 출신의 백 예비후보는 30년가량 중앙당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전문위원, 사무부총장을 지낸 정통 당료 출신이다. 무안 출신의 서 의원은 박석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재선 전남도의원, 3선 무안군수를 지냈다. 백 예비후보가 지난 패배의 설움을 할지, 서 예비후보가 재차 승리를 거머질 지 관심이 쏠린다.

백 예비후보는 50대 중반의 '젊음'과 당과 정부에서 쌓은 폭 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앞세워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문재인정부 제 1기 청와대 사회혁신 선임행정관직 경험자로서 청와대·정부와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끌어올 수 있고, "기록권 정치세력이 아니다"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친환경 스마트 농축수산업 기반 마련 ▲남약 신도시, 서남권 교육 중심도시로 육성 ▲삼호산단 기계·조선산업에서 자동차산업으로 확대 등이다.

농축수산업과 관련해 백 예비후보는 주요 채소류 가격 하락시 도매가의 80% 수준으로 보상을 확대하고, 천일염의 경우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국가관리품목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파 생산시설과 축산 분야 첨단화(스마트

팜) 및 지원을 확대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남약신도시 외국어교육특구 지정 및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어린이 영아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남약신도시를 서남권 교육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백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오랜 카르텔을 형성한 폐쇄적 기록권을 타파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신진 정치세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 예비후보의 강점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민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력과 함께 강한 조직력,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경험이 서 예비후보의 강점으로 거론된다.

서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영암·무안·신안과 같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영암·무안·신안을 서남권 중심도시로 견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구를 비롯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어촌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익형수산 직불제 도입 ▲1000원 여객선 도입 등 섬 지역 교통여건 개선 ▲병원선 및 응급 헬기 예산 확보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KT·무안공항 경유, 활주로연장 사업 조속 추진 ▲영암 대불산단,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개조, F1 경기장 활용도 제고 ▲혁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3선 군수를 역임하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서삼석을 선택해 주시면 주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피며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올 저출산·고령화 대책 1100억 투입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의결

광주시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으로 올해에만 1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0 광주시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광주시는 올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광주를 비전으로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대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저출산 대책은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충족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모든 아동의 포용 및 존중 ▲청년의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 110개 사업이며, 501억3200만원을 투입한다.

고령사회 대책은 ▲노후 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보급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541개 사업으로, 620억1400만원을 투입·시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 구조적, 시대흐름적 현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공감하고, 광주시측에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광주시도 단순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노동·고용·주거·교육·보육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총선 후보선전탑 설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51일 앞둔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역 광장에 4·15 총선 관련 대형후보선전탑이 설치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문화·예술 보조금 투명하게 운용해야"

혁신추진위 권고

광주시의 문화·예술 관련 민간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직속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민간 경감 보조금 운용을 시정 혁신 과제로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11월 시장 직속 심의기구로 출범한 후 시립예술단 활성화, 미디어아트 장의 도시 등에 이은 문화·예술 분야 3년째, 전체 12번째 권고다.

혁신추진위는 시정혁신안을 통해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문

화·예술 민간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문화·예술 민간경감보조금이 운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선 방안으로 ▲시 문화·예술 정책에 부합한 민간경감보조금 운영방향 설정 ▲투명·공정한 문화예술 민간경감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문화·예술 민간경감보조금 공모사업의 합리적 운영 ▲문화·예술 민간경감보조금의 철저한 정산·평가로 생산성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른 27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추진위는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광주시는 3개월 이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